

8 경희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

25년, 경희의 길을 닦아온 시간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4년 남짓 거닌 학교에도 우리는 평생 ‘모교’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운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물며 20년이 넘도록 묵묵히 학교를 돌봐온 이들에게 ‘경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그들의 땀방울이 스며들며 모습을 달리해 온 교정은 그 자체로 그들의 기록이자 작은 역사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5년 동안 비질로 학교의 아침을 깨운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심한식 씨는 새벽 5시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학교에 도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문으로 들어서기 전 먼저 길을 닦아야 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도 미리 갈무리해두기 위해서지요. 때문에 심 씨가 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 눈에 띄는 쓰레기 없이 평소처럼 깨끗해서, 내가 있는 줄도 몰라야 일을 잘한 셈이지.”라며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역할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심 씨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평화복지대학원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나고 자랐던 그는 그의 첫 일터가 될 이곳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고, “경희와 젊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힌 당찬 포부가 실현될지는 알지도 못한 채 면접을 통과해 덜컥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에게는 교정을 가꾸는



텅 빈 교정을 바라보던 심한식 씨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한진석 기자)

일만큼 재미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르친다는 대학원의 이름마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5년 전 어느 가을, 교정에 쌓인 낙엽을 모으며 그의 비질은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쓸어내 청소하는 일을 뜻하는 ‘쇄소(灑掃)’는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에서도 가르치는 모든 배움과 덕행의 기본이라 합니다. 그가 오랜 기간 한결 같이 교정을 가꿀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우리학교는 참 예쁘지만, 잘 닦아놓아야 학생들도 기분이 좋고 공부도 잘되

는 것 아니겠어”라고 말하며 심 씨는 본관 앞을 둘러봅니다. 그가 돌본 캠퍼스가 배움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부심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캠퍼스로 자리를 옮겨올 때에도 그가 맡은 일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많은 구성원, 더 큰 캠퍼스를 대하며 책임감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망가진 시설이나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면 누구의 일이라 따질 것 없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라고 말하며 웃는 그에게서 경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관리환경과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본관에도 그의 자리가 생겼지만, 여전히 심 씨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왠지 어색하다고 합니다. 캠퍼스의 환경 관리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고, 동료들에게 컴퓨터 작업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는 교정의 산책로와, 동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각 건물의 현장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만 일하게 못 놔둬. 다치지 말라고 둘러보려고 나선 길에 그냥 같이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는 그저 다른 구성원들처럼 주어진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잠깐 결눈질로 보아도 그의 시간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눈과 빗물을 몸으로 퍼내야 했고, 학내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맡았을 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내를 오가는 외부인의 흔적,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진 쓰레기를 찾기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고, 눈 여겨보지 않는 자리에 그의 손이 닿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년 봄 그의 오랜 임무를 내려놓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 그리고 사회로 나아갈 졸업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학교의 환경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그의 남은 소망입니다. 학교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냐는 물음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느 한 곳을 꼽을 수 없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학교가 참 좋아요. 그중에서도 어디라고, 또 왜라고 말을 못 하겠네.”

처음 보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인사도 건네주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심 씨. 그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교정에서 걸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정리한 자리에서 이야기 소리, 걸음 소리 들리는 게 제일 큰 보람인데. 고생할 학생들, 직원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꽃과 함께 다시 피어날 이야기들을 기다리며, 그는 오늘도 교정의 비탈을 오릅니다.

후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개인안심번호는
NAVER, kakao,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R체크인

남은시간 15초

개인안심번호
12가34나

이용하려는 시설의
수기명부에 기재하세요.

2021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Thomas Weiss, Ram Cnaan, 오준 등)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공)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1. 모집과정	석사과정
2. 모집전공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3. 전형방법	면접
4. 원서접수기간	5월 24일 ~ 7월 1일(기간 내 수시모집)
5. 온라인 원서접수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6. 문의처	• 이메일 : gip@khu.ac.kr • 문의전화 : 031-570-7012~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